

서울 시내 일개 대학병원에 내원한 가임 여성의 풍진 항체 보유율

엄진원
삼성서울병원

본 연구의 목적은 풍진 예방접종의 혜택이나 자연감염 노출의 기회가 적었던 만 21세 이상의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풍진 항체 보유율을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특성 및 풍진 예방접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성인 대상의 풍진 추가 예방접종에 대한 참고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. 1996년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내 일개 대학병원의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진찰 받았던 만 21~42세 가임 여성중 전화설문에 응하였던 543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.

1. 전체 조사 대상자 543명중 풍진 IgG 항체 양성자는 353명으로서 65.0% 였다. 연령별로는 21~25세 연령군에서 72.2%로 가장 높았고 26~30세 연령군이 71.4%, 31~35세 연령군이 54.5%, 36세 이상의 연령군에서는 52.6%로 연령군에 따라 풍진 IgG 항체 양성율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. 예방접종을 받은 군에서의 풍진 IgG 항체 양성율은 81.8%, 풍진 감염 과거력이 있는 군의 풍진 Ig G 항체 양성율은 83.3%였다.

2. 풍진 예방접종 필요성에 대한 인식율은 50.8%였으며 분만력에 따른 풍진 예방접종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.

이상의 결과에서 현재 만 21세 이상의 가임여성에서 풍진 IgG 항체 양성율과 풍진 예방접종을 및 인식율은 낮은 상태에 있으므로 앞으로 풍진 추가 예방접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.